

1. 화제

여러분 비문학의 원래 과목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독서'입니다.

요즘 많은 강사분들이 정말 좋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글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읽는지에 대해 많은 방법이 있지요. 저도 이런 글을 읽는 태도나 관점의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딱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비문학, 독서 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을 '글답게' 읽어야 합니다.

물론 80분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독서랑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고득점을 위해서는 '독서' 즉, 글 읽기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 향상을 이뤄내지 못하는 학생분들은 이런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철저하게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고, 단순히 문제를 맞히기 위한 연습들만을 하고 있습니다.

18번 문제의 정답 근거, 3문단 4번째 줄 밑줄 짝!

지문 구조분석, 문단 요약, 내용 정리 딱!

이렇게만 해서는 성적이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독서 태도와 독해 도구를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소설이든 만화든 어떤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그어 가면서 읽으시나요? 또는 글을 읽을 때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표시들을 예쁘게 하면서 읽으시나요? 아니면 책 옆에 내용 구조도를 그리면서 읽거나, 문단마다 요약을 하면서 읽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남기는 게 나쁘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나 이런 표시'만' 하면서 주객전도되는 상황을 문제 삼는 겁니다)

대신 필자가, 혹은 이 글이 나에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필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지는 '무조건' 파악하면서 읽으실 겁니다. 수능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을 읽는 것이고 이것을 읽을 때는 지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어때요, 조금 낫지 않으신가요? 이 기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의무보유’였습니다. 위의 경우와 다르게 아래의 경우에는 이 의무보유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무보유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그나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억 2천여 개의 주가 매도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똑같이 키워드에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키워드의 ‘정의’와 ‘속성’입니다. 수능 지문에서도 생소한 개념에 대한 글을 자주 소개합니다. 일반적인 수험생이 양자 역학적 터널링 기술이나, 가능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을 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문을 이해하고 글의 이해를 묻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문에서 해당 개념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죠. 그런 정보들은 항상 ‘정의’와 ‘속성’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아는 그 Definition입니다. 속성은 정의 이외에 어떤 키워드들의 특징이라고 할만한 모든 정보들을 통칭합니다. 이때 정의와 속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하나의 특징은 있습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볼게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과거제의 정의가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것과 과거제의 특징이 ‘합리성’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제는 ‘능력주의적(정의)이니까 합리적이다(속성)’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평가원이 정의를 주는 방식인데요. 평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제시합니다. 일반적 정의와 숨겨진 정의가 대표적인데, ‘숨겨진 정의’로 문장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해당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자칫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게요.

◆ 1. 일반적 정의

일반적 정의는 말 그대로 ‘A는 ~이다’와 같은 꼴로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A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정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예시로 봅시다.

사회 이론은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을 통칭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사회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이론의 정의는 ‘사회 구조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이론들’이라고 하네요.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절대 위치’, ‘상대 위치’라는 키워드의 정의를 ‘A는 ~이다’와 같은 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일반적 정의입니다.

독해 Tip

-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해 문장이 제시된다면 꼭 확인하자.
 - 지문(1문단 이후에서 나온다면 해당 문단)에서 다룰 내용을 담은 **핵심 문장**이다. 이 문장이 곧 화제로 직결되기도 한다.

- ② **비교지점**은 '거의 대부분' 출제 포인트로 작용한다.
 - 공통점 · 차이점이 드러난다면 꼭 비교지점을 잡으면서 정리하자. 단순히 같다 다르다를 체크하는 것을 넘어,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서 다른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정보가 정리되며 이해가 수월해진다.

- ③ 특정 **개념 간의 상관관계**(비례/증감 등)가 나온다면 꼭 체크하자.
 - 역시나 엄청난 출제 포인트이다.

- ④ 그래프를 볼 땐 **X축과 Y축**에 주의하자.
 - 그래프는 **상관관계의 연장선**이다. **변수 간 관계**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 ⑤ **'예외'**에 주목하자.
 - 비교지점의 연장선이다. 일반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를 따로 잡아두는 건 중요하다. 예외 역시 일반적인 상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출제 포인트가 된다.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꼭 정리하자.

- ⑥ 기술 지문은 **작동 원리나 순서**에 따라 내용이 서술된다.
 -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할 때 유의하자. 순서만 잘 파악해도 한결 편해진다.

- ⑦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자.
 - **비교지점의 연장선**이다. 특정 키워드에 대해 서술하는 지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면 **시대별로 공통점 · 차이점**이 등장한다. 이 또한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목해줄 필요가 있다.

- ⑧ 내용 일치 문제의 선지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하자.
 - 반복되는 키워드들만 위주로 보더라도 핵심 키워드가 뭔지 파악할 수 있다. 그걸 캐치하지 못하더라도 눈여겨본 키워드들이 문제에 출제될 때 즉시 선지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충분한 도움이 된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편 87p)

-2014 LEET [17~19]

제국주의는 식민지의 영토만이 아니라 서구 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들을 통해 식민지의 문화와 정신까지 수탈했다. 그 이데올로기들은 식민 지배의 과정에서 '과학적인' 지식의 형태로 전파되었다. 역사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근대 역사학' 또한 식민 지배 정당화의 도구 역할을 하였다. 근대 역사학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생산된 담론들을 식민지의 근대적 교육 기관을 통해 유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의 역사를 구성하여 역사에 관한 식민지인의 사유 방식까지 지배했다.

하지만 제국주의가 남긴 정신적 상흔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결과, 이제 서구의 역사 역시 세계사의 '중심'이 아니라,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비서구 문명도 서구 문명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서구 문명의 여러 요소는 오히려 비서구 지역에서 전파되었다는 점 등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로써 서구 중심주의가 근본적으로 극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명 담론에 대해, 그리고 그 담론에 수반하는 '근대성'과 '진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유 방식에 대해 근본적 재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근대 역사학의 핵심에는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이 깔려 있다. 역사주의의 핵심은 '진보'라는 개념, 그리고 진보의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즉 역사는 시간과 함께 진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주의적 사유에 따르면, 시간은 늘 역사적 진보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질적이고 비어 있는 시간'이다. 그리하여 근대 역사학은 '공간의 시간화' 전략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동질적인 시간상의 위치 측정 기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전'의 시간(전근대)과 '지금'의 시간(근대)을 '진보'라는 개념으로 연속시키면서 각각의 시간에 비서구의 역사와 서구의 역사를 배치했다. 즉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를 문명 상태로 전환할 사명을 가진다는 제국주의의 '문명화 사명' 주장의 바탕에는 서구와 비서구 모두 단선적 시간 위에서 동일한 역사적 진보 과정을 밟는다는 역사주의적 사유 방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시간의 이 위계적 구조로 인해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서만 아니라, 각 국가와 사회 내부에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회 집단들 간에 '발전의 불균등'이 재생산되었다. 즉 한 사회 내부에서도 이른바 근대적인 발전에 뒤쳐져 있다고

규정된 집단 - 예를 들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농민 - 은 여전히 전근대를 살아가는 후진적 존재로 간주되면서 주변화되고 배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근대적인 시간 안으로 편입될 것을 강제당해 왔던 것이다.

그러면 서구 중심주의적 근대 역사학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단순히 비서구적 공간도 문화적 고유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서구와 동일한 역사적 진보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상이하고 이질적이며 '환원 불가능한' 역사적 시간들이 '지금 그리고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 그리고 같이' 존재하는 역사들은 근대의 서사와 권력 관계에 편입되지 않는 역사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적 시간으로 포섭할 수 없는 '이질성'이 역사적으로 현존함을 인정하고, 근대가 갖는 보편성이나 동질성을 균열시킬 수 있는 그 이질성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26.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 ① 근대 역사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한 사회 내부의 전근대적 계층을 주변화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근대 역사학의 '공간의 시간화' 전략은 서로 다른 지역의 역사적 사건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한다.
- ③ 근대 역사학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합리성이라는 특징이 있기에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다.
- ④ 역사주의적 사유는 공간의 차이와 시간의 추이를 환원 불가능한 별개의 것으로 상정한다.
- ⑤ 역사적 시간을 위계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성으로 '문명화 사명' 이론이 등장하였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편 178p)

-2021 LEET [25~27]

암세포의 대사 과정은 정상 세포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토 바르부르크가 발표한 '바르부르크 효과'에 따르면 암세포는 '해당작용'을 주된 에너지 획득 기전으로 수행하고 또 다른 에너지 획득 방법인 '산화적 인산화'는 억제한다.

세포는 영양분으로 섭취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을 통해 ATP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또한 ATP와 같은 고에너지 분자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위해 작은 분자로부터 단백질, 핵산과 같은 거대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이화작용을 통해 ATP를 생산하기 위해 세포는 영양 물질을 내부로 수송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영양 물질인 포도당은 세포 내부로 이동하여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작은 분자로 분해된다. 이론적으로 포도당 1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ATP로 전환될 경우 36개 또는 38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이 중 2개의 ATP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작용을 통해, 나머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대부분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해당작용과 산화적 인산화는 수행되는 장소도 다르지만 요구 조건도 다르다. 해당작용에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지만, 산화적 인산화에는 필수적이다. 세포 내부에 산소가 부족하면 산화적 인산화는 일어나지 못하고 해당작용만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작용의 최종 산물인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바뀌는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 심폐 기능에 비해 과격한 운동을 하였을 때 근육 세포에서 생성된 젖산이 근육에 축적된다. 젖산 발효 과정은 해당작용에 필요한 조효소 NAD^+ 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NAD^+ 로부터 해당작용의 또 다른 생성물인 조효소 NADH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해당작용에서 포도당 1개가 2개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될 때 NADH가 2개 만들어지고, NADH 1개당 3개의 ATP를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만들 수 있는데, 젖산 발효를 하는 세포는 NADH를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NAD^+ 로 전환하는 손해를 감수한다.

바르부르크 효과는 산소가 있어도 해당작용을 산화적 인산화에 비해 선호하는 암세포 특이적 대사 과정인 '유산소 해당작용'을 뜻한다. 암세포가 더 빨리 분열하는 악성 암세포로 변하면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해당작용에 대한 의존이 증가한다. 약물 처리 등으로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 해당작용에 대한 의존

이 줄고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의존이 증가한다. 유산소 해당작용을 수행하는 암세포는 포도당 1개당 ATP 2개만을 생산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해당작용에 에너지 생산을 대부분 의존하므로 정상 세포에 비해 포도당을 더 많이 세포 내부로 수송하고 젖산을 생산한다.

바르부르크 효과의 원인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설명이 있다. 첫 번째는 암세포의 빠른 성장 때문에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거대 분자를 동화작용을 통해 만들기 위해 해당작용의 중간 생성 물질을 동화작용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해당작용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체내에서 암세포의 분열로 암 조직의 부피가 커져서 산소가 그 내부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암세포가 억제하여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의 실행을 방해함으로써 스스로의 사멸을 막으려 한다는 이론이다. 바르부르크는 이러한 암세포 특이적 대사과정의 변이를 발암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와 암 억제 유전자에 생기는 돌연변이가 주된 발암 원인이고, 바르부르크 효과는 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돌연변이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해당작용의 산물 중 NADH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 ② 해당과정 중 소비되는 NADH의 재생산은 해당작용의 지속적 수행에 필수적이다.
- ③ 심폐기능에 비해 과격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젖산은 늘어나고 NAD^+ 는 줄어든다.
- ④ 동화작용에서 거대 분자를 만들 때 해당작용의 중간 생성물이 사용된다.
- ⑤ 바르부르크 효과에 의해 암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유발된다.

24. 밑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상실되면 NADH로부터 ATP를 만들지 못한다.
- ② 유산소 해당작용을 수행하는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히 존재할 때에도 해당과정의 산물을 NAD⁺와 젖산으로 전환시킨다.
- ③ 포도당 1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ATP로 전환될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34개 또는 36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 ④ 포도당 1개가 피루브산 2개로 분해되었고 이때 생성된 조효소의 에너지도 모두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로 전환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생성된 ATP는 모두 8개이다.
- ⑤ 암세포의 유산소 해당작용 과정 중 포도당 1개당 생산되는 ATP의 개수는 정상세포의 산소가 있을 때 수행되는 해당작용의 과정 중 포도당 1개당 생산되는 NADH의 개수보다 많다.

25.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암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는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를 이용하는 핵의학 검사법이다.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는 포도당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암 조직과 같은 포도당의 흡수가 많은 신체 부위에 수송되어 축적되므로 단층 촬영을 통해 체내에서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분포를 추적할 수 있다.

- ① 피루브산이 젖산으로 전환되는 양이 증가하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줄어들 것이다.
- ② 포도당이 피루브산으로 전환되는 양이 감소하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늘어날 것이다.
- ③ 세포 내부의 산소가 줄어들어도 동일한 양의 ATP를 생성하려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늘어날 것이다.
- ④ ATP의 생성을 해당작용에 좀 더 의존하도록 대사 과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줄어들 것이다.
- ⑤ ATP의 생성을 산화적 인산화에 좀 더 의존하도록 대사 과정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방사성 포도당 유도체의 축적이 늘어날 것이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편 189p)

-2019 LEET [7~9]

첨단 소재 분야의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이 필요하다. 전자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 다만 광학 현미경은 관찰의 매체로 가시광선을 사용하고 유리 렌즈로 빛을 집속하는 반면, 전자 현미경은 전자빔을 사용하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빔을 집속한다는 차이가 있다.

광학 현미경은 시료에 가시광선을 비추고 시료의 각 점에서 산란된 빛을 렌즈로 집속하여 상(像)을 만드는 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세한 구조를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크기가 매우 작은 점광원에서 나온 빛은 렌즈를 통과하면서 회절 현상에 의해 광원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지는 원형의 간섭무늬를 형성하는데 이를 '에어리 원반'이라고 부른다. 만약 시료 위의 일정한 거리에 있는 두 점에서 출발한 빛이 렌즈를 통과할 경우 스크린 위에 두 개의 에어리 원반이 만들어지게 되며, 이 두 점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두 에어리 원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원반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아지면 관찰자는 더 이상 두 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점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한계점에서 시료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해상도'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현미경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의 해상도는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 렌즈의 초점 거리에 비례하며 렌즈의 직경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사용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최소 해상도가 작아지며, 더 또렷한 상을 얻을 수 있다. 광학 현미경의 경우 파장이 가장 짧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더라도 그 해상도는 파장의 약 절반인 200 nm보다 작아질 수가 없다. 반면 전자 현미경에 사용되는 전자빔의 전자도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파동 이중성'에 따라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이 파동을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한다. 물질파의 파장은 입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인 운동량에 반비례하는데 전자 현미경에서 가속 전압이 클수록 전자의 속도가 크고 수십 kV의 전압으로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대략 0.01 nm 정도이다. 하지만 전자 현미경의 렌즈의 성능이 좋지 않아 해상도는 보통 수 nm이다.

전자 현미경의 렌즈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사용하여 전자의 이동 경로를 휘게 하여 전자를 모아 준다.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속도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힘을 받는데 그 방향은 자기장에 대해 수직이다. 전자 렌즈는 코일

을 적절히 배치하여 특별한 형태의 자기장을 발생시켜 렌즈를 통과하는 전자가 렌즈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만든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키면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 전자가 받는 힘이 커져 전자빔이 더 많이 휘어지면서 초점 거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물렌즈의 초점 거리가 작아지면 현미경의 배율은 커진다. 따라서 광학 현미경에서는 배율을 바꿀 때 대물렌즈를 교체하지만 전자 현미경에서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배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렌즈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전자가 받는 힘을 적절히 조절하여 한 점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광학 현미경에 비해 초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전자 현미경은 고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빔을 사용하므로 현미경의 내부는 기압이 대기압의 $1/10^{10}$ 이하인 진공 상태여야 한다. 전자는 공기와 충돌하면 에너지가 소실되거나 굴절되는 등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절연체 시료를 관찰할 때 전자빔의 전자가 시료에 축적되어 전자빔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통 절연체 시료의 표면을 금 또는 백금 등의 도체로 얇게 코팅하여 사용한다.

광학 현미경에서는 실제의 상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전자 현미경에서는 시료에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를 검출기에 집속하여 상이 맺힌 지점에서 전자의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시료 표면의 형태를 디지털 영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전자 현미경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한 검출기 및 주변 기기를 장착하여 전자 현미경의 응용 분야를 확장할 수 있다.

26.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광학 현미경의 해상도는 시료에 비추는 빛의 파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② 전자 현미경에서 진공 장치 내부의 기압이 높을수록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 ③ 전자 현미경에서 렌즈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통과한 전자는 같은 점에 도달한다.
- ④ 전자 현미경에서 시료의 표면에 축적되는 전자가 많을수록 상의 왜곡이 줄어든다.
- ⑤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은 모두 시료에서 산란된 파동을 관찰하여 상을 얻는다.

27. 뒷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의 특성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전자의 물질과 파장이 길수록 전자가 전자 렌즈를 지날 때 더 큰 힘을 받는다.

ㄴ. 전자의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 상에서 에어리 원반의 크기를 더 작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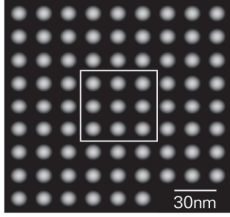
ㄷ. 전자 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면 상의 해상도를 더 작게 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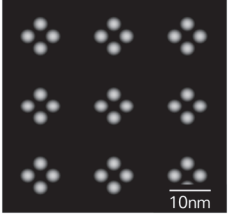
2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크기가 일정한 미세 물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구조를 전자 현미경으로 각각 찍은 사진이며 (나)는 (가)에서 사각형 부분에 해당한다.



(가)



(나)

- ① (가)의 해상도는 30 nm보다 크다.
 ② (가)에서 전자 현미경 내부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크다.
 ③ (나)에서 사용된 전자의 물질과 파장은 20 nm보다 크다.
 ④ (나)에서 렌즈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가)의 경우보다 크다.
 ⑤ (나)에서 사용된 전자의 속력은 (가)에서 사용된 전자의 속력보다 3배 작다.

[4~6]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현대의 환경 위기는 인류의 생존 문제일 뿐 아니라 근대 이후 구현되어 온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즉 그것은 ‘생존’을 빌미로 하는 신유형의 독재나 제국주의를 유발함으로써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세계시민주의 등의 이념들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인 것이다. 환경 위기는 특히 ‘철학적 근대’에 관한 담론에서 중요 주제로 부각된다. 이 위기는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하고, 또한 그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킨 근대의 철학적 혁명에서 비롯되었기에, 사상사적 맥락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근대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적 근대는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그대로의 수용도 원천적 거부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적 문제이다. 저 송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적·실천적 자율성을 주창한 철학적 근대를 통해 정초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환경 위기를 ‘인본주의적 가치’, ‘철학적 근대’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철학적 근대’가 어떤 이유에서 환경 위기를 초래했고, 어떤 환경 위기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이 지문의 화제가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는 아마도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제 잡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현대의 환경 위기는 인류의 생존 문제일 뿐 아니라 근대 이후 구현되어 온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환경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봅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참,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인간’을 모든 가치의 중심으로 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본주의(휴머니즘):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

즉 그것은 ‘생존’을 빌미로 하는 신유형의 독재나 제국주의를 유발함으로써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세계시민주의 등의 이념들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인 것이다.

현대의 환경 위기가 왜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지 설명해주는 재진술 문장입니다. 환경 문제는 ‘생존’을 빌미로 자유, 인권, 평등과 관련된 민주주의적 이념을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여기서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세계시민주의 등의 이념’이 곧 ‘인본주의적 가치’라는 점은 잡으셔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유, 인권, 평등’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개념들이죠? 특히 인권은 인간 존엄성과 직결되는 개념이니 반드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읽어 줍시다.

환경 위기는 특히 ‘철학적 근대’에 관한 담론에서 중요 주제로 부각된다.

이번엔 ‘철학적 근대’와 환경 위기를 엮습니다. 따옴표까지 쳐져 있는 키워드이니 꼭 주목해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화제와 관련된 키워드니까 중요해요.

지문의 맥락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 위기가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에 철학적 담론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철학적 근대’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설명해줄 거예요. 지금은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넘어갑시다.

이 위기는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하고, 또한 그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킨 근대의 철학적 혁명에서 비롯되었기에, 사상사적 맥락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근대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네, ‘철학적 근대’와 환경 위기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일종의 재진술이죠. 그리고 여기서 ‘철학적 근대’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숨겨진 정의예요!

내용도 하나씩 봅시다. 여기서 ‘이 위기’는 환경 위기를 가리킬 거예요. 환경 위기는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는 세계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대의 철학적 혁명’에서 비롯됐어요. 이때는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연을 경시하게 되겠죠? 자연을 경시한 대가가 환경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 다시 철학적 근대의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철학적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자연을 경시한 철학적 사조입니다. 맥락상 ‘근대의 철학적 혁명’이 곧 ‘철학적 근대’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자연을 경시하게 되었으므로 ‘철학적 근대’가 환경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니 원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철학적 근대는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그대로의 수용도 원천적 거부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적 문제이다.

계속해서 ‘철학적 근대’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대의 환경 위기를 초래한 철학적 근대는,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동시에 지닌다고 해요. 장점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환경 위기를 초래하니깐 무조건 반대! 이렇게 나갈 순 없다고 합니다. 인본주의적 가치마저 위협하는 환경 위기를 초래한 ‘철학적 근대’가, 얼마나 큰 장점을 갖길래 거부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뒤로 넘어갑시다.

저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적·실천적 자율성을 주창한 철학적 근대를 통해 정초되었기 때문이다.

네, 철학적 근대가 갖는 딜레마적 문제를 알려주는 재진술 문장입니다. 인본주의적 가치가 바로 철학적 근대로부터 탄생했네요!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철학적 근대가 등장함 → 이로부터 인본주의적 가치가 등장함 → 동시에 환경 위기도 초래됨 → 환경 위기가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함 → 그런데 철학적 근대가 원인임

→ 철학적 근대를 거부하자 하니, 인본주의적 가치의 근원이고, 이걸 수용하자 하니 환경 위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가치가 침해됨(딜레마)

그렇다면 뒤에서는 철학적 근대를 중심으로 이 딜레마적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시되었으니 대안 또한 등장할 수도 있겠죠? 화제 잡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2문단

철학적 근대는 ㉠ 데카르트주의의 발흥 및 완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이성적 사유 주체의 절대적 확실성을 철학의 제1 원리로 논증하는 이 사상 체계에서 자연은 주체에 대해 근본적 타자로서, 그 어떤 자기 목적이나 내면도 없는 단적인 물질적 실체, 즉 ‘길이, 넓이, 깊이로 연장된 것’이라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된다. 인간과 자연의 이러한 위계적 이원화는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되거니와, 기계론적으로 양화되는 연장의 영역으로 정위된 자연은 인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재 창고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철학적 근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인간 중심적이다. 이 포인트만 쥐고 읽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름 재진술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철학적 근대’를 잘 이해하는 게 핵심적인 독해 태도입니다.

참 그리고 여기서 ‘데카르트주의’가 1문단에 제시된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이라는 점을 파악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철학적 근대가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토대로 하고, 그게 곧 데카르트주의로 제시되는 맥락입니다.

철학적 근대는 ㉠ 데카르트주의의 발흥 및 완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철학적 근대로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애의 핵심은 ‘데카르트주의’에 있나 봐요. 그렇다면 데카르트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해야, 철학적 근대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중요하게 읽어야겠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포인트는 비슷하겠죠?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이라는 철학적 근대의 핵심은 기억하면서 넘어갑시다. 앞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건 기본이니까요.

① 이성적 사유 주체의 절대적 확실성을 철학의 제1 원리로 논증하는 이 사상 체계에서 자연은 주체에 대해 근본적 타자로서, ② 그 어떤 자기 목적이나 내면도 없는 단적인 물질적 실체, 즉 ‘길이, 넓이, 깊이로 연장된 것’이라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된다.

데카르트주의의 정의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이라는 핵심, 1문단에서 제시된 철학적 근대의 숨겨진 정의를 파악해야 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끊어서 볼게요.

① 이성적 사유 주체의 절대적 확실성을 철학의 제1 원리로 논증하는 이 사상 체계에서 자연은 주체에 대해 근본적 타자로서,

여기서 ‘이성적 사유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 기억하시죠? 이성을 갖는 건 인간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셔도 좋겠네요. 이 주체의 ‘절대적 확실성’을 제1원칙으로 합니다. 인간의 절대적 확실성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그만큼 절대적이고 확실한 존재라고 받아들여지면 됩니다. ‘절대적 확실성’이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다가온다면 뒷부분을 읽으면서 파악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간을 강조하는 데카르트주의에서 ‘자연’은 주체(인간)에 대한 ‘근본적 타자’입니다. 주체가 아니라 ‘타자’가 되는 거예요.

② 그 어떤 자기 목적이나 내면도 없는 단적인 물질적 실체, 즉 ‘길이, 넓이, 깊이로 연장된 것’이라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된다.

자연은 타자로서, 내면도, 목적도 없는 물질적 실체에 불과합니다. 이성을 가진 주체(인간)와는 굉장히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셔야 해요. 그래서 자연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길이, 넓이, 깊이’는 곧 물질적 실체와 같은 말입니다.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먼저, 주체의 ‘절대적 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타자인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은 우등한 존재입니다. 그걸 ‘절대적 확실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문단

주목할 것은 헤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는 점이다.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나아가 일견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개념적'이라고 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곧 '예술의 종언' 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이른다.

이때까지 봤던 내용들을 화제와 엮어서 재진술하는 문단입니다. 그리고 예술사와 지성사의 단계 차이도 이해하셔야 해요. 그것만 한다면 충분합니다. 그럼 하나씩 읽어볼게요.

주목할 것은 헤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는 점이다.

네, 화제로 돌아옵니다. 예술사와 지성사를 엮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 모델을 보니 한번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바로 뒤에 재진술 문장이 있으니 그것까지 같이 보면서 읽어볼게요.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이 문장을 통해 정신사와 예술사의 이행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점'은 미학적 차원에서는 '고전적 단계'가,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낭만적 단계'입니다. '낭만적 단계'에서는 오히려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술적 차원에서는 '낭만적 단계'를 '하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나아가 일견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네, '정점'이 다른데 헤겔은 예술사와 지성사를 엮어서 설명합니다. '이중적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해야겠어요.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곧 '예술의 종언' 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이른다.

거의 문단 하나 수준입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요.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헤겔의 예술론은 예술의 과거와 현재(예술론이 제시된 시점에서는 미래)까지 모두 설명합니다. 즉,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죠. 그러나 동시에 도출된 결론은 '예술의 종말'입니다.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예술을 철학으로 병합하는 기능을 해요. 그게 앞 문장에서 말한 '이중적 기능'이 됩니다.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앞에서 제시된 이행 모델을 재진술하는 대목입니다. 낭만적 단계가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정점이었지만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하강이었죠. 결국 헤겔의 예술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낭만적 단계'는 미적 차원에서는 '하강'의 단계입니다. 즉, 이전 단계에 비해 미적인 정도가 낮아진 상황이죠. 이 상황을 보고 '추'를 새로운 미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전보다 미적이지 못하니까 '추'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추/하'할 때의 그 '추'입니다.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지며,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은 말 그대로 현대를 의미합니다. 즉, 헤겔은 미래 상황까지 예견한 겁니다. 그만큼 예술의 본질을 잘 설명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는 동시에 예술을 철학에 편입시킵니다. 예술은 고대에서만 존재하고 현대에는 철학에 밀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곧 '예술의 종언' 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예술의 종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곧 헤겔이 내린 미학적 결론이 됩니다. 앞서도 설명했듯, 예술의 본질을 논하지만 동시에 예술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문 총평

지문의 앞부분에서 키워드들이 쏟아지고 정보량이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황하지 않고 군집화를 잘한 상태에서 2~4문단을 읽는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서 나온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화제에 수렴합니다. 지문을 이해하는 방식이, 재진술을 이해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연습을 하기 좋은 지문입니다.

7. 윗글에 제시된 헤겔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정답 : ③

- 사실상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군집화했던 정보들과 각 단계를 중심으로 선지 판단해봅시다.

- ①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현되므로, 작품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파악이다.

→ 일단 지문에서 헤겔의 예술론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작품의 예시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 또, 헤겔의 예술론은 오히려 예술의 일반 개념을 파악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의 예술론은 '거시적 차원'의 정신사와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단계를 정신의 발달 단계와 엮어서 설명했죠. 그래서 각 예술의 장르와 함께 단계를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예술의 본질에 대해 논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해설 Comment에서 얘기했듯, 헤겔의 예술론이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라는 점을 근거로도 이 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 의해 추동되므로, 작품들의 미적 수준의 차이는 그것들의 장르적 상이성과 무관하다.

→ 헤겔은 장르론과 결합하여 예술론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장르별로 예술 발달 단계를 나누기도 했는 걸요. 건축 - 조각 - 회화 · 음악 · 시문학으로 각 단계가 나뉘었습니다. 완전 헛소리예요.

- ③ 문명의 모든 단계적 이행은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술의 역사는 다른 영역의 역사와 연계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 화제 그 자체입니다. 예술사를 정신사와 엮어서 설명했죠. 문명의 단계적 이행도 드러났어요. 태고 오리엔탈부터 중세 유럽까지 군집화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 ④ 예술은 인간 정신의 심층적 차원을 표출한 것이므로,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 예술미에 대해서는 '내용과 형식의 일치 정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차원에서의 발전 정도는 각 단계 별로 '출발 - 완성 - 하강'이라고 설명했는걸요. 내용과 형식의 일치가 곧 미적 정점이라고 했습니다. 즉, 형식 또한 내용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혹은 상징적 단계에서, 형식이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특징을 떠올려도 판단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 ⑤ 예술 양식 변화의 근원은 인간 내면의 보편적인 정신적 욕구에 있으므로, 모든 시대의 작품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 대놓고 틀렸습니다. 각 시대별로 예술의 발달 단계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었던 걸요. 화제와 직결되는 헤겔의 주장이었습니다.

8. 윗글에 따라 각 시대의 장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시대와 장르는 군집화했던 내용이죠. 그걸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해야겠네요.

- ① 태고 오리엔트의 조각은 상징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태고 오리엔트는 '상징적 단계'와 같은 군집이었죠. 그러나 '조각'은 '고전적 단계'와 같은 군집이었습니다. 태고 오리엔트의 전형적인 예술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태고 오리엔트 시대는 '건축'이 전형적인 예술입니다.

- ②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는 고전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고대 그리스는 고전적 단계와 같은 군집입니다. 그러나 '서사시'는 '낭만적 단계'와 같은 군집이었습니다. 서사시는 고대 그리스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닙니다.

- ③ 중세의 기독교 회화는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중세 유럽과 회화는 모두 '낭만적 단계'와 같은 군집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 ④ 근대의 고전주의 음악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 근대는 중세 이후입니다. 그럼 '낭만적 단계'라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고전주의 '음악' 또한 '낭만적 단계'에 속한다고 보아야합니다. 전형적인 예술이 맞네요. 여기서 '고전/주의'라는 포인트를 보고, '고전/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리했던 개념들의 범주를 보고 판단하셔야 해요.

- ⑤ 현대의 건축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현대 또한 중세 이후이니 '낭만적 단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은 태고 오리엔트 시대의, '상징적 단계'의 예술이죠. 건축은 현대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닙니다.